



스위스 천연 스파.

호수와 강에서 따뜻한 스파 체험

유청 스파부터 보트 스파, 보트 사우나까지

여행 중에 즐기는 뜨끈한 사우나

사방으로 펼쳐진 알프스와 호수

일행끼리 프라이빗 사우나 보트 대여해서 직접 운전해 봐도

스위스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쉼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천연 풀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삼림욕을 하고, 알프스 풍경을 벗 삼아 핫 터브에서 쉬어보고, 차가운 산정 호수에서 얼음 욕에 도전하고, 사우나 보트를 타고 호수 위를 떠다녀 본다. 이런 천연 스파는 스위스 휴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스위치를 끄고, 쉬어가며 스위스 가을의 밝은 빛깔을 즐겨볼 아름다운 곳을 찾아보자.

1. 그린델발트(Grindelwad)의 핫 터브

따스한 나무 옥조에서 웅장한 베르네제(Bernense) 알프스 산세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린델발트 유스 호스텔에서다. 독특한 웰니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 한복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핫 터브 서비스는 오후 4시부터 저녁 10 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다음이 포함된다.

- 조명이 설치된 핫 터브 사용 (최대 5 인)
- 타월
- 예약: 조식이 포함된 숙박

그린델발트 기차역에서 “보드미(Bodmi)” 행 버스를 타고 “각기 새게(Gaggi Säge)”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2 분만 걸으면 유스 호스텔이 나온다.

2. 브리엔츠(Brienz) 호수의 핫 터그(Hot Tug)

반은 보트고, 반은 욕조다. 이것이 바로 핫 터그다. 38 도의 온수 안에 편안하게 앉아 브리엔츠 호수를 동실동실 떠다닐 수 있다. 겨울철에는 폴폴 날리는 눈송이가 이마에 내려앉기도 한다. 겨울철 스파가 이보다 더 쿨할 수는 없다. 맑고 신선한 겨울 공기가 편안하게 폐 속으로 침투한다. 따스한 물이 노곤하게 근육을 풀어준다. 최대 6 인까지 함께 탈 수 있는 보트는 전기 모터로 운행된다. 소형 난로가 있어 90 분 동안의 여정 동안 따뜻함을 유지해 준다. 저 멀리 눈 덮인 알프스 봉우리가 수평선 너머로 솟아올라 있다. 핫 터그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무척 인기이므로, 사전에 예약을 꼭 하도록 한다.

pirate-bay.ch

3. 알프스 정통 웰니스, 리기(Rigi)의 새서렌홀츠(Chäserenholz)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웰빙 체험이다. 화려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리기의 알프 새서렌홀츠(Alp Chäserenholz)에서다. 특별한 점은 이곳의 나무 옥조에 담긴 물은 ‘유청’이라는 것이다. 치즈를 만들고 남은 물을 사용한 스파다. 그 외에 노천 월풀과 알파인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어 분주한 여정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리기 정상에서 20 분 정도만 걸으면 농장이 나온다. 웰니스 체험 후에는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도 있는데, 홈메이드 스페셜티로 풍성하게 차려낸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이용할 수 있다.



4. 루체른(Luzern) 호수 사우나 보트

황금빛 가을 날이라면 더 좋고, 밖이 춥고 비 내리는 날이어도 좋다. 루체른 호수의 기후는 진정 아름답다. 호수 한복판에서 네 시간을 떠다니거나 호숫가에 조용히 정박한 채로 주변 풍경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난로가 있어 사우나 온도를 최대 90°C 까지 유지할 수 있다. 2 인에서 6 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 보트는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어 프라이빗 스파로 제격이다.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사우나 후에는 사우나 보트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제호텔 카스타니엔바움(Seehotel Kastanienbaum)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거나 하룻밤 묵어가도 좋다. 폭풍이 치지 않는 한 곳은 날씨에도 보트는 운항된다.

다음에 포함된다:

- 1 인당 생수 한 병
- 장작불
- 연료

루체른 기차역에서 버스나 유람선을 타고 카스타니엔바움 슈프슈타치온(Kastanienbaum Schiffsstation)에서 내리면 된다.

5. 비츠나우(Vitznau) 사우나 곤돌라

몸과 마음, 영혼을 위한 웰니스다. 전용 호수 공간을 확보한 사우나 곤돌라는 비츠나우어호프(Vitznauerhof) 호텔에 있다. 중앙 스위스 한복판, 유명한 리기산자락, 루체른 호숫가의 가장 아름다운 스파에 호텔 비츠나우어호프가 있다. 마사지, 코스메틱, 바디 트리트먼트, 사우나, 자쿠지까지 마련되어 있다. 호수와 알프스의 풍경이 펼쳐지는 사우나 곤돌라야말로 가을날의 하이라이드다. 투숙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곳은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에 포함된다:

- 객실 내 서프라이즈
- 조식 뷔페
- 와이파이
- 사우나 및 증기탕
- 가든의 노천 월풀
- 사우나 곤돌라

루체른 기차역에서 유람선을 타고 비츠나우에서 내린 뒤, 5 분만 걸으면 된다.

6. 취리히(Zurich) 호수 사우나 보트

취리히 호수에도 사우나 보트가 있다. 전기를 이용하는 스위스 최초의 사우나 보트로, 분주한 도심에서 벗어나 취리히 호수의 고요 속에 빠져볼 수 있다. 보트 한가운데에는 사우나 룸이 있는데 파노라마 창과 난로가 있어 최대 최대 90°C 까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땀을 뺀 뒤에는 도시와 알프스의 웅장한 파노라마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시원한 호수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면 그래도 좋다. 네 시간 동안 최대 6 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 없이 보트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경우, 보트를 운항하는 대신 선착장에 정박한 채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료의 30%를 할인받게 된다.

다음에 포함된다:



- 1 인당 생수 한 병
- 장작불

취리히 엔게(Enge) 기차역에서 10 분 거리에서 보트를 탈 수 있다. 트램을 이용할 경우, “렌테난잘트(Rentenansalt)” 역에서 하차해 5 분 정도 걸으면 된다.

7. 샤프하우젠(Schaffhausen) 라인(Rhine) 강 사우나

취리히의 근교, 샤프하우젠에서는 라인 강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 사우나-유어텐되르플리(Sauna-Jurtendörfli)다. 샤프하우젠 중심에 있는 라인 강가에 위치해 있는데, 추운 겨울날에도 따뜻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 스위스 최대의 스틸 박스 욕조로, 라인 강 뷰가 있는 배럴 사우나, 아로마가 은은한 파인 사우나, 유르트 사우나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사우나 후에는 라인 강에서 몸을 식힐 수도 있다. 유르트 빌리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그룹 전용으로 이용된다.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비스트로 유르트에서 허기도 달랠 수 있다.

샤프하우젠 기차역에서 “부흐탈렌(Buchthalen)” 행 6 번 버스를 타고 “라이바디(Rhybadi / IWC)” 정류장에서 내린 뒤, 50m 만 걸어가면 사우나 입구가 나온다.

*** [7 Schaffhausen] 폴더 내의 이미지 사용 시 다음 저작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 Rhysauna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